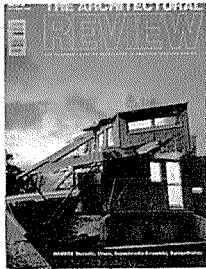


The Architectural Review

주택 건축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10월호에서는 주택의 의미에 대한 재고(아래 요약내용 참조)와 함께, 전통적인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거주감을 제공해 주고 있는 현대적인 작품들을 집중 조명해 다루고 있다.



■ 주택 특집

『주거가 없는 것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중 하나이다. 진정한 거주감, 적주성을 획득해 내는 것은 모든 건축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이다. 주거를 만든다는 것, 즉 외부로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내부로는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을 창조한다는 것은 건축의 근본이다. 건축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건축가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상적, 충격적인 테마에 의존하기에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다른 예술 분야와는 달리, 건축에서는 인간을 위한 예술을 묵묵히 추구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알도 반 아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건축가들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설사 외부가 되는 경우라도, 건축가의 임무는 내부를 제공하는데 있다. 건축은 더도 덜도 말고, 인간의 귀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물론 이것은 르 꼬르뷔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서 주택에 관한 모든 옛 관념들을 버리고 비판적, 객관적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기계로서의 주택’, 즉 대량 생산 주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도

와주는 연장, 도구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도덕적이며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주택에 대한 개념은 이 두 가지 시각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상상력에 있어 더욱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반 아이크의 생각이다. 또한 대량 생산 주택은 아무런 감흥도 전달하지 못하는 끝없는 삼류 건축물들로 전락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름 없는 건축가들이 만든 주택들을 보면 모두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삶의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르 꼬르뷔제의 돌이노 시스템을 통해 이를 재현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황당한 결과만을 가져왔으며, 양적인 팽창 속에서 건축의 질은 잊혀져 왔다. 본 특집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의 집합이나 주택의 표준화보다는 개개의 주택이다. 사실 개인 주택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건축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건축이기에 건축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다. 본 특집은 장소 만들기의 기본이 사라져가는 세대에 대한 반론으로써 제기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여러 주택들은, 우리 시대에 맞는 주택 개념을 재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 중 ‘주거 만들기’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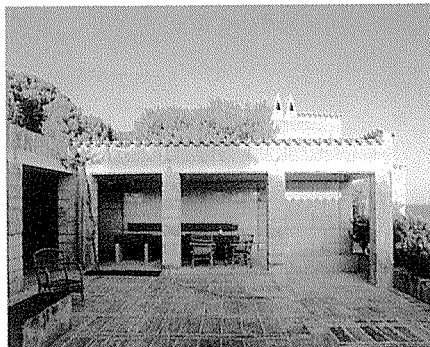
▶글렌 머컷트(Glenn Murcutt)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열대 지역과 산악 지역에 각각 설계한 두 주택은, 기본적인 피난처로서의 주택의 의미를 재해석한 결과이며 ▶마조리카 섬에 있는 오픈 윌슨의 두 작품은 재료와 형태에서 지역적 전통과 기하학적 형태를 조화시켜 신비감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소개된 ▶지즈코비츠-코발스키, ▶세스 스타인, ▶로칸 오힐리, ▶토마스 스피겔할터, 폴커 긴케, ▶반 베르켈-보스, ▶마크 가드의 최근 주택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철재, 유리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강한 색과 형태가 강조된 초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 인테리어 디자인

▶대지의 환경과 일반 주택의 특성을 조화시킨 멜보른 교외의 주택, ▶런던 도심가의 30년대 공장 옥상부분을 개조하여 만든 빛이 가득찬 펜트 하우스, ▶동굴이라는 주거의 원형을 연상시키면서도 근대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주택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비평

역사가 남긴 도시설계의 교훈을 무시한 채 흉측하게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로마의



마조리카섬의 주택(오픈 윌슨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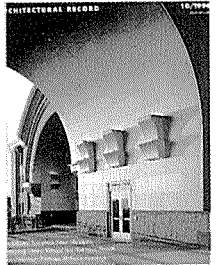
비포리오 엠마누엘 2세 기념관에 대한 비평을 실고 있다.

■ 기타

19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그래픽 디자이너 고든 컬렌(Gordon Cullen)의 건축적 시각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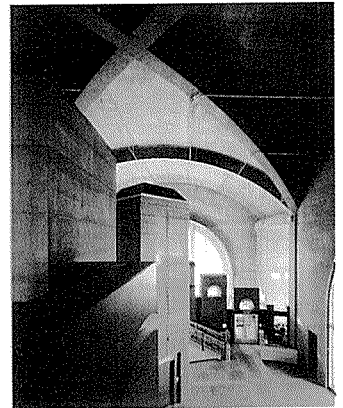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10월호 〈근작소개〉에서는 워싱턴 주립 역사박물관, 페루주제 미국 대사관, 마키의 도쿄 교회, 플로리다의 엑스 주유소를 소개하고 있으며 건물 종류에 따라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꼽힌 호텔 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다.



■ 근작소개

▶워싱턴 주립 역사박물관 / 찰스 무어작



찰스 무어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주립 역사 박물관은 피라네지의 에칭 작품들을 연상시키는 거대하고 강한 형태들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본문에 실린 ‘근면한 도시를 위한 힘있는 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타코마에 있는 워싱턴 주립 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은 설계 경기,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건축주의 도움, 확고한 전망, 시민들의 의지 등 오늘날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로, 고속도로, 노쇠한 창고들에 의해 오히려 고립된 도시를 부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1991년 폐쇄된 기차역의 재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주립 대학과 역사박물관 신축이 계획되었다. 워싱턴 주립 역사협회가 후자의 건축주로 나섰으며, SUNY 버펄로의 건축계획 학과장 브루노 프레스가 국제 설계경기의 전문 고문으로 선정되었다. 그의 다

양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국제설계경기에는 총 30팀이 참가했고, 아더 앤더슨-찰스 무어, 마이클 그레이브스 등 4팀이 최종에 올라, 결국 타코마의 문맥과 감수성을 잘 반영한 앤더슨 무어 안이 당선되었다. 그들의 디자인은 이웃하는 보자르 식 기차역의 형태를 반영하였고, 프레시와의 협의를 통해 각 재료는 그 특성(아치를 이루는 벽돌, 콘크리트의 가스성, 빛을 반사하는 알루미늄 등)을 발휘하도록 사용되었다. 주가 선정한 전체 프로젝트의 매니저인 원로 건축가 제임스 코플랜드는 건축주와의 올바른 의사 소통을 성공의 관건으로 보고 이에 주력하는 동시에, 시인들의 올슨-선드버그와의 연결을 주선하여 원만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역사협회에서는 별도의 기술자를 현장 매니저로 기용하여 시공 공정을 파악하였고, 박물관 측에서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선정해 전시계획을 세웠다. 다층의 협력 관계에 의해 완성된 역사박물관은 비평가와 시민 모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페루주재 미국대사관 / 아키텍트니카작
마치 외부인의 접근을 거부하듯 성벽과 같은 흉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표면에 그려진 다양한 문양은 페루와 미국의 역사적 형상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도쿄 후미히코 마키의 교회
정면은 4층의 전면 유리로 이루어져 빛을 내부에 도입하고 있으며, 그 내부는 전통적인 나무 창살과 창호지를 연상시키는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리다의 엑슨 주유소 / 하디-홀츠만-파이버 팀작
난잡한 표지판을 제거한 새로운 주유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연속기획 - 호텔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경제성을 위해서 대부분 표본 설계를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시아와 유럽의 고급 비즈니스 호텔, 휴양지 호텔, 그리고 호텔의 재건축 분야에서는 설계자들에게도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설계한 일본 후쿠오카의 하아트 리전시 호텔을 비롯하여, ▶50년대 재개발 붐과 함께 사라진 스페인 식민지 건축의 특징을 되살린 코스타 리카의 마리웃 호텔, ▶아르누보를 비롯한 고전적인 형상들로 가득한 뉴욕의 맨스필드 호텔, 파타고니아의 장엄한 자연과 내부의 직접적인 만남을 위해 접이 지역을 삭제한 칠레의 호텔 엑스플로라를 살펴본다.

■ 기타

▶철골 건축의 내진성에 대한 재고, ▶3개월 후의 사용자 평가를 통해 만족도가 75%를 넘을 경우 설계-시공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되는 계약의 예를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설계 협조 체계, ▶그래피소프트 사의 아키텍트 5.0 소프트웨어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e



9월호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개인전 용박물관들과 캐나다 밴쿠버의 건축에 대한 탐방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최근 2년간의 공사끝에 새건물이 들어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주거건축에 대한 기사도 다루고 있다.

■ 유럽의 개인전용 미술관들

유럽에는 19세기부터 한 예술가의 작품만을 다루는 전문 미술관들이 많이 존재해 왔다. ▶페터 메르클리가 설계한 조각가 요셉슨을 위한 「콘지운다 재단 박물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펠릭스 누스바움 박물관」, ▶마리오 보타의 「장 텡글리 박물관」, ▶아넷 기곤-마이크 가이어의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흐너 박물관」 등 전시된 작품과 그것을 담은 건축물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최근의 대표적인 개인전용 박물관들을 살펴본다.

■ 영국 캠브리지 대학 증축

최근 2년 간의 공사 끝에 전통 깊은 캠브리지 대학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5명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철재, 유리의 차갑고 명쾌한 형태가 돋보이는 노만 포스터의 법학관, ▶단순하면서 육중한 마이클 홉킨스의 퀸스 빌딩 극장, ▶화려한 색채와 장식이 두드러진 존 아우트람의 경영학관, ▶중첩된 각들로 이루어진 타워 형태를 띤 맥코맥-제이미슨-프리처드의 기숙사, ▶위요된 중정이 있는 제레미 디슨, 에드워드 존스의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다.

■ 캐나다 밴쿠버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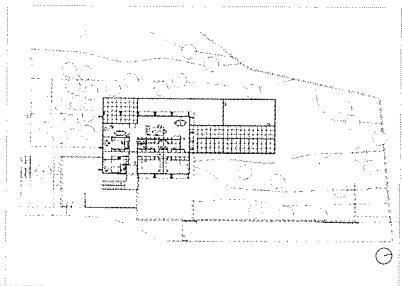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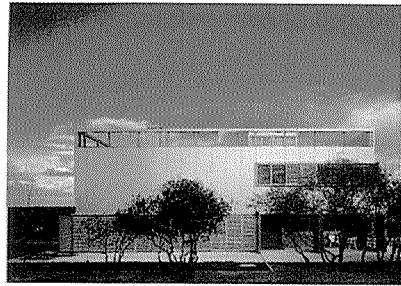
캐나다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최근 이민과 투자로 개발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밴쿠버의 건축에 대해 알아본다. ▶밴쿠버 건축 사무소 액튼-존슨-오스트리(AJO)의 독창적인 작품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리처드 앙리계의 「브리티쉬 콜롬비아 저스티스 인스티튜트」, ▶버스비-브리저 사무소(Busby Bridger Architects)의 하이테크한 건축물들을 살펴본다.

■ 아시아의 고층 건물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시계획을 추진 중인 아시아에서는 미국 설계에 의한 고층 건물 프로젝트들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세자르 펠리가 설계한 말레이시아의 88층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 ▶콘-페더슨-폭스(KPF)의 높이460m 「상해 국제경제센터」, ▶스키드 모어-오웬스-메릴(SOM)의 「상해 진 마오 빌

딩」이 소개되어 있다.

■ 현대의 모더니즘 주택들



스페인 마드리의 Gordillo주택/아발로스+헤레로스 작

유럽과 호주에서는 아직도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주거건축이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헤어조크-드 뮈론, ▶아발로스-헤레로스, ▶카를로스 페라타-조안 쿠비나우, ▶하인츠 비에네펠트, ▶에드 립만의 최근 작품이 소개되었다 다음은 '현대의 모더니즘 주택들'에 대한 본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모던한 주거 건축에 대해 더 관용적이어 왔다. 르 꼬르뷔제, 미스 반데어 로에, 알바 알토의 전통은 최근의 마리오 보타, 렘 콜하스, 엘리아스 토레스의 주택들에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모더니즘은 아직도 건축의 철학적 바탕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주택들 중에는 근대의 거장들 작품처럼 구조적 표현, 빛, 자유로운 공간 등에 매혹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 역사적 문맥과 전통 문제를 도입하거나 심지어 철학적 유산을 비꼬는 작품들도 있다. 이들은 모더니즘이 가진 추상, 엄밀성 등의 성격이 결국 융통성 없는 축소 경향을 초래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로 잡고 있다. 이 주택들이 가지는 융통성과 포용력은 20세기 건축의 중요한 업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적어도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말이다.』

■ 기타

▶프랭크 게리와 SOM의 합작인 「스페인 발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별관」의 디자인과 시공 면에서 컴퓨터의 절대적인 역할,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피터 코리간의 경멸에 가득한 건축적 테러 행위, ▶도시의 안보성에 대하여 유럽의 최근 행정 방침들이 주는 교훈, ▶최신 컴퓨터 프린터와 플로터 제품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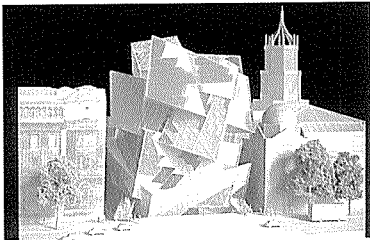


11월호 <작품특집>에는 ▶스파이럴(다니엘 리베스킨트) ▶미요 大高 架橋(노먼 포스터)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陶器 二三雄) ▶山香町役場(新居千秋) ▶太田邸컴플렉스(吉松秀樹/아키프로) ▶多治見大和幼稚園(시스템 수트) ▶白石市立白石第二小學教(芦原太郎 北山恒) ▶中野坂上썬브라이트 투원(住宅, 都市整備公園東京支社/헬름 건축, 도시 컨설턴트+山本 堀아키텍트) 등이 소개되었으며 <연재물>로는 ▶공간의 시네마토 그라피 제3회-머시니즘(machinism)에의 예감과 ▶構造家 列傳 제14회-피터 라이스 ▶東京灣岸 필드 노트 제7회-이식된 중심 등이 실렸다.

■ 작품특집

• 스파이럴(다니엘 리베스킨트작)



개념모형도

런던의 Victoria and Albert Museum 미술관(이하 V&A)의 확장 프로젝트인 이 작품은 다니엘 리베스킨트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다음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오래된 V&A의 입구에 새겨진 [상상력] 과 [지식]이라는 두 단어로 대표되는 이 미술관의 이념속에서 21세기의 V&A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향해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V&A는 건물의 확장을 제안하여 전시공간, 교육용 시설, 상호작용 지향적인 새로운 전시설비 등의 복합요소를 지니는 종합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나의 제안은 '레디 메이드'로서의 미술관, 즉 엄밀하게 규정되고 수동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을 갖는 미술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건물의 디자인은 다음의 3가지 차원을 축으로하여 구성된다. 1. 예술과 역사의 나선(螺旋) 운동 2. 내부와 외부의 결합 3. 발견의 미로가 바로 그것인데 건물은 이들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기능적으로 연결된 수미일관한 집합체로서 표현된다. 새로운 V&A는 (신/구, 내/외, 구조/형태, 건축/장식, 테크놀로지/공예 라는) 서로 다른 두 항목들을 새롭게 열린 퍼스펙티브에 끌어들이으로써 이들의 분할과 접촉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였다.

•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陶器 二三雄 作)



당선작 모형도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가칭)'에서는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관서관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토오끼 후미오(陶器 二三雄)와의 그의 당선작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있다.

이번 설계경기에서 토오끼는 국회도서관이라는 상징성보다도 단정한 품격과 주변환경에 대해 조용히 서있는 듯한 분위기를 건물에 불어넣으려 했다고 한다. 그는 도서관이 들어설 부지에 잡목림이 군데 군데 위치한 것을 실마리로 옛날 잡목림으로 덮여있었을 풍경, 컨텍스트를 새로운 환경속에 재생한다는 생각을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가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건물의 상당부분을 지하에 묻지 않으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건물안의 어프로치에서 종합참고열람실로 갈 경우 홀과 로비를 경유하여 왔던 길을 다시 지하로 통과하게 하고 그 사이에 썬큰가든을 만들어 주위의 풍경을 볼 수 있게 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자연과의 대화, 도서관이 주는 느낌이 점점 자기 자신에게로 스며들며 건물의 근원에 다가가는 느낌을 받도록 의도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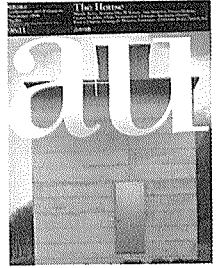
그는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입구에 위치한 유리로 된 상차부근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중정에 위치한 썬큰가든을 면하여 모든 시설을 배치하고 이 썬큰가든이 잡목림의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독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번 설계경기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전자도서관'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에대한 토오끼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미디어가 상당히 변모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는 전자도서관을 형태로서 건물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변모하는 미디어를 어떻게 건축을 통해 담아내고 내포할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한다.

이 도서관은 2002년 12월 경에 개관할 예정이다.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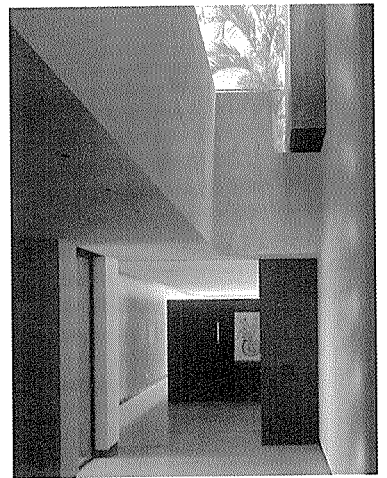


11월호는 「주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15개의 세계 각국의 주택을 선보이고 있으며 작품의 내용은 주로 자연을 배경으로한 그 나라의 지방색과 함께 작가의 개성을 나타낸 작품들이 돋보인다.

■ 작품 - 주택

이번호에 소개된 작가와 작품이 위치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Peter Märki(스위스) ▶Geoffrey Bawa (스리랑카) ▶Ernesto Bedmar (싱가폴) ▶Rahul Mehrotra (인도) ▶Tan Tjiang Ay (인도네시아) ▶Ernst Beneder (오스트리아) ▶Ignacio Vicens and Jos Antonio Ramos (스페인) ▶Caruso St John (영국) ▶Albin, Vasconcelos, Elizondo (멕시코) ▶Machado and Silveti (미국) ▶Norman Foster (독일) ▶Oswald Mathias Ungers (독일) ▶Herzog & Meuron (스위스) ▶Rem Koolhaas (네덜란드/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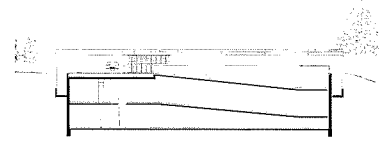
• House in Las Matas (Ignacio Vicens + José Antonio Ramos 作)



Ignacio Vicens 와 José Antonio Ramos의 작품(House in Las Matas)에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를 매일 감싸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건축은 다시 태어나야 하며 여태껏 다 시태어나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Las Matas에 지어진 이 건물은 '살기위한 세계'이다. 생활로부터 나오는 요구로부터 만들어졌으며 건축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제안되었다. 중심이 되는 장소는 넓은 거실이며 이곳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침투되고, 땅에 뿌리내린 듯한 주택의 다른 부분에 둘러싸여져 있게 되어 외부의 정원과 통일감을 만들어 내려하고 있다. 수직과 수평의 방향으로 확장되는 각 공간은 거실에 집중되고 수평방향으로는

식당, 지상층의 다른 부분, 정원으로 전개된다. 거실의 상부에는 대조적으로 주택의 보다 사적인 부분이 위치하게 된다. 주택의 외부는 대지에 관입한 듯한 인상을 주며 음과 양을 만들어 낸다. 주택의 돌출한 부분들은 빛과 조망을 고려한 것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불어넣어주며 지면에서 약간 파내려간 형태로 부대시설인 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 Private House in Germany (Norman Foster작)



단면도

이 작품은 젊은 부부와 그 가족을 위한 주택이다. 대지는 남사면이며 수림이 울창하고 계곡을 향해 좋은 조망이 열린 곳이다.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와 조적조로 이루어진 2층의 건물인데 도로로부터 주택의 옥상으로 진입하게 된다. 현관은 옥상 테라스에 설계되어 있으며 경사로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사로가 주택의 각 층을 연결하게 된다. 한 층을 내려가면 또다른 옥외 테라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옥외공간은 독립된 철골기둥과 루버가 달린 지붕으로 감싸져 있다. 주택의 최하층은 가족이 모이는 장소이며 책꽂이가 달린 벽난로와 개방된 부엌이 위치하고 그 중앙에 2개층의 천정고를 가진 공간이 자리한다. 주택의 주인은 요리를 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환기시설이 잘 갖춰지고 전문적인 설비를 갖춘 부엌을 설계해야 했다. 외부계단은 대지와 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각 층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 주택에서는 외부와 내부의 연결방법이 약간 변형되어 있어 가족이나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는 환경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고려된 환경을 만들어 낸다.

• Dutch House (Rem Koolhaas작)



Rem Koolhaas의 소개된 두 작품중 Dutch House는 永住者인 부부와 가끔씩 찾아오는 그들의 딸들을 위한 주택이다. 그는 말단 빙퇴적이 해발 50m에 네덜란드의 구릉으로 남아있고 소나무 숲이 있는 금빛의 모래 언덕에 위치한 불안한 대지 상황으로부터 설

명을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도로면에서부터 4m의 고도제한과 건축면적의 과도한 제약이 건물의 높이와 전체 길이를 정하고 말았다. 지형은 변형되었으며 자동차를 타고 순회할 수 있는 작은 진입로는 건물에 효율적인 출입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주인부부의 성인이 된 3명의 딸들이 방문자 이상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프로그램을 두개로 나누게 하여 이는 하나의 집이 다른 하나의 집을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서로다른 거주자의 상황을, 특정한 대지나 장소에 연관시켜 때로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 자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으로 번역하는가가 그의 관심사였다. 또한 최소한의 형태적 표현으로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딸들을 위한 모델'은 하나의 벽으로 둘러싸여져 중정과의 연속성을 가지게 하고 水晶化된 주인부부를 위한 콘테이너는 유리로 둘러싸여진 외벽을 통해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며 이 둘을 잇는 결절점은 중심에 있는 경사로로, 이들을 시각적, 기능적으로 연결한다. 역설적으로 이 물리적 단절에 의해서 두 개의 상대물의 조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신건축



11월호에 소개된 주요작품과 작가들은 ▶리퍼블릭 프라자(黒川紀章) ▶兵庫縣立看護大學/姫路文學館南館(安藤忠雄) ▶浜田市 世界어린이美術館(高松伸) ▶부유하는 劇場(Maki & Associates) ▶쓰구바카피오(谷口吉生) ▶파크코트杉並宮前(早川邦彦) 등이며 ▶학교 2題와 ▶학교에 대한 좌담회와 대담 내용이 실렸다. <건축논단>으로 '혁명의 건축박물관' 이, <특별대담>으로 '건축가와 자격' 이 실렸으며 그 외 ▶베니스 비엔날레 제 6회 건축전 일본관 「龜裂」와 ▶프로젝트인 「센다이미디어테크」 등이 소개되었다.

■ 특별대담 - '건축가와 자격'

특별대담에서는 GATS, 즉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축가의 자격에 대해서 건축가 鬼頭粹와 건축평론가 馬場瑋造와의 대담 내용이 실려 있다. 이들은 미국의 건축가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에 대해 전혀 무방비의 상태로 놓여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국의 건축가들이 단지 외국(미국)의 건축가의 스태프로서만 활동하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표명하고 있는데, 최근 커다란 경제성장을

보인 개발도상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의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축가의 국제적 활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인 시장개방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역성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고 있어 이는 UIA에 있어서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건축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 이들이 단지 보다 적은 설계료를 제시하는 건축가에게 일을 의뢰하는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국제화를 맞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얼마나 일본의 사회가 국제화 속에서 문화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어떻게 일본의 건축가들이 세계로 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건축사자격은 국제적으로는 아키텍트의 자격으로 통용되어 질 수 없다. 국제화가 추진되어가는 중에 국가간 건축가의 자격을 상호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랜기간동안 각국의 과제였다. EU가 오랜기간을 거쳐 상호승인의 규칙을 정했으며 NAFTA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UIA의 PPC(적응 실무 위원회)가 '건축실무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의 국제推獎기준'을 2년간 준비하여 금년 UIA 총회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제적 자격문제에 WTO가 관계하고 있는 것은 회계사로 다음은 건축가가 되지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대담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PPC의 리포트속에 현재 일본의 상황을 시인하는 내용은 면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PPC리포트 중에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 점이다. PPC회의에 참여한 JIA의 주장으로 이점은 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허용된다고 정해졌다. 그러나 각 대학의 커리큘럼이 엄격히 통제되는 미국과 달리 각 대학의 자유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그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적 자격기준에 있어서 일본은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담자들은 건축가에게 있어서 '자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현재 건축가들 자신이 그 활동범위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 후 자기반성을 통해 강한 디자인 지향에 비해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스스로 지적, 건축가의 재생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들(일본 건축가)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끝으로 건축가의 명확한 책임관계에 대한 지적을 덧붙이며 국제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좀더 건축계 모두가 생각해나가야 할 문제라 하였다.

(번역 : 강상훈, 최원준)